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5월 23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Worship - 찬양

☞ 그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찬 563)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서로 사랑하라(요일 4:7-11)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고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7-8)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딤후5:8)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가정은 학교가 아닙니다. 가정은 따뜻해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은 영적 가족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회에 내 놓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을 넘어 영적인 가족을 만들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롬12:5)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롭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셀은 작은 교회입니다. 셀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셀은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혼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통해 배우고 성숙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일4:9)

두 번째 사랑의 속성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일4:9)

세 번째 사랑의 속성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4:10)

좋은 그리스도인은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의무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죄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때 영적인 가족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3:13)

2. 적용 (하나님의 응답,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 1)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 2) 나의 쉼을 자랑해보세요(3가지)
- 3) 내가 사랑해야 할 영적 식구는 누구입니까?

Work (함께 기도합니다)

1. 영적으로 한 몸되는 기쁨의교회가 되도록
2.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도록
3.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쉼이 되도록
4. 나의 VIP를 위하여

그 사랑

박희정

예수 사랑하심은

A. B. Warner 사 W. B. Bradbury 곡

한국찬송가공회 역